

천주교 올바니 교구
소셜 미디어 사용 정책
('청소년과 함께 사목하는 데 필요한 권장 기술 지침'을
수정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현장 준용)
2010년 미국 가톨릭 청소년 사목 전국 연합

"현대 문화에서 매우 뚜렷한 연결성 욕구 및 소통 본능은 타인과 교감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지속적인 성향의 현대적 표상입니다." 2010년 세계 소통의 날에 교황 베네딕토 16세

다음 지침은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근무하는 사목 담당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전자 미디어 사용 표준입니다. 사목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숙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명된 서류의 사본은 본당, 학교 또는 기관 사무실에 보관합니다.

성당 및 사목 웹 사이트

- 사이트에 공식 기관 로고를 표시하여 기관의 공식 사이트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웹 콘텐츠는 천주교 교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 공공 웹 사이트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 정보 및/또는 연락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 또는 청소년의 사진 또는 기타 식별 정보는 웹 사이트에 게시하기 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막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면 승인 문서는 전자 복사본 또는 하드 카피로 본당 또는 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 두 명 이상의 성인이 공식 관리자로서 기관의 모든 계정/사이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본당, 학교나 기관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 사진이나 정보를 웹 페이지나 사이트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 방문자와 통신할 때에는 기관의 공식 전자 메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

- 사이트에 공식 기관 로고 또는 표준 이미지를 표시하여 특정 개인의 사이트가 아니라 기관의 공식 사이트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사제, 부제, 수도자, 평신도 사목자와 자원봉사자는 개인용 사이트 및 페이지를 직업용 사이트 및 페이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페이지 및 개인 정보를 아동 및 청소년에게 광고하거나 그들이 액세스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목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제, 부제, 수도자, 평신도 사목자와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천주교 사목자임을 밝힐 때 신중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음주 행위에 대한 설명 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사목 활동 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 두 명 이상의 성인이 공식 관리자로서 본당, 학교 및/또는 기관의 모든 계정/사이트에 대한 모든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두 명의 성인은 모든 페이지 활동 전자 메일 경고를 공식 기관 전자 메일 주소로 수신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긴급한 요청에 더 빨리 응답할 수 있으며 모든 게시물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친구/연결 요청은 본당, 학교 및/또는 기관의 성인 대표가 아니라 청소년이 먼저 원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소년 활동 사진에 청소년이 '태그'로 지정되어서도 안되고, 청소년이 이름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합니다.
- 원래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태그 지정 안 함'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 잠재적인 가족 또는 십대의 위기, 사목 기대의 특성 또는 시간 관련 정보 때문에 기관의 공식 관리자가 페이지를 자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M전자 메일 및 텍스트/인스턴트 메시징

- 청소년과의 통신은 본당, 학교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당, 학교 또는 기관 사업 관련 통신은 본당, 학교 또는 기관의 전자 메일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서명뿐만 아니라 직위를 사용하여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 텍스트 기반 통신 도구를 사용하여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통신은 공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신 또는 게시물 작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 사목 활동의 표준으로서, 미성년자와의 전자 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징의 교환을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제, 부제, 수도자, 평신도 교회 사목자와 자원봉사자는 직업/성당 용도로 통신할 때 개인 용도의 이메일 계정과는 별도의 전자 메일 계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 성인과 청소년의 통신 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 또는 매개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사목하는 사람은 청소년이 전화 통화가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정해두어 매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전화하지 않도록 합니다.
- 통신할 때마다 전문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과 청소년간의 관계가 유지해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암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통신은 피해야 합니다. 청소년으로부터 그런 전자 메일을 받은 경우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통신은 복사하여 보관하고 본당 신부, 본당 생활 지도자 또는 감독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본당 신부, 본당 생활 지도자 또는 감독은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부적절한 통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전자 메일은 잘 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달리 잘 못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항상 메시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전자 메일은 보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급히 보내거나 격한 감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블로그

- 전문적인 사목 관련 블로그는 다가오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사목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도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를 외부 사업 및/또는 개인 활동을 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사목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해당 블로그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 블로그에 대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 게시된 정보, 의견, 참고 문헌 및 자료는 천주교 교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 ▶ 청소년과의 통신은 본당, 학교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의 목적은 곧 예정된 활동 전단지, 허가서/동의서, 달력 및 사목 활동 업데이트 유포, 어린이 교리 교육을 위한 링크 및 참고 문헌 게시, 성사 준비 정보 또는 부모 자원 제공, 오늘의 성경 말씀, 기도 또는 영성적 링크/자료 제공 등입니다.
- ▶ 청소년이 공인 기관 활동의 일환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경우 두 명 이상의 성인이 해당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기타 개인 정보로 청소년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하며, 해당 블로그는 천주교의 교리 및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온라인 비디오 및 채팅방

- ▶ 청소년-성인 단독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채팅방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온라인에 비디오를 게시할 때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사목 관련 이벤트 및 활동을 소개/광고하는 비디오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 ▶ 어떠한 경우에도 성인과 미성년자 간 일대일 비디오 또는 채팅방 상호 작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 사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채팅/토론에 참여할 때 사목자는 자신의 견해가 World Wide Web 에서도 천주교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등록 기술 및 개인 정보 보호

등록 양식, 조사 등에 있는 정보를 포착하는 것은 간단한 웹 사이트 또는 블로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 및 구현이 필요합니다. 웹 페이지의 양식은 정보를 기록 및 전송하는 수많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양식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관련 의사 결정 및 요건을 통해 해당 정보 전송의 안전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본적인 웹 상호 작용(URL 의 http://)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암호화된 보안 전송(SSL 이라고도 하는 https://)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웹 서버를 통해서도 보안 전송(https://)을 할 수 있지만, 요즘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특히 Verisign 또는 GeoTrust 와 같은 타사 확인을 통해) 웹 서버 ID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를 캡처하는 등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타사 보안 인증을 위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 ▶ 전자 메일, 양식 정보를 전자 메일로 변환하는 웹 페이지 또는 일반적인 하이퍼텍스트 전송(http:// 페이지)을 사용하는 웹 양식을 통해 중요한 개인 정보, 특히 금융 정보(신용카드 번호, 당좌예금 계좌 번호) 및 보안 식별자(예: 주민 등록 번호)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 사용자가 서버와의 통신을 타사 서비스(Verisign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중요한 개인 정보를 SSL(https://)을 통해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 웹 마스터 또는 등록 양식 담당자의 기술력이 부족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권장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당 또는 기관이 해당 양식을 생성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기술/웹 솔루션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 안전한 웹 양식의 생성 및 관리는 반드시 자격 있는 개인 또는 웹 솔루션 제공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금융 데이터를 본당/기관에 알릴 필요가 없도록,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상거래 웹 사이트에서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식에 금융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중요한 개인 데이터(예: 주민 등록 번호, 비밀번호,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 등)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에 기술된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 SSL(https://) 전송을 처리하는 웹 서버용 타사 보안 인증서(예: Verisign, GeoTrust 등)를 획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fcym.org/resources/technology/index.htm

천주교 올바니 교구
소셜 미디어 사용 정책
(아동 및 청소년 보호 현장 준용) 동의서

은/는 _____
이름(정자체)

천주교 올바니 교구 소셜 미디어 사용 정책을 읽고 요구 사항을 숙지했으며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사목할 때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서명

날짜

이 양식은 본당/학교/기관 사무실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